

아역 배우 출신 전성시대

“참 잘~ 컸네”



김유정·서신애·진지희·유승호 등 진짜 배우로 성장

“높은 인지도 살리면서 꾸준히 활동 이미지 변신 성공”

“어리게만 보지 마시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 MBC TV 예능 ‘복면가왕’에 출연한 아역 출신 배우 서신애가 건넨 담부의 말이다. ‘지붕 뚫고 하이킥’(2009)의 신신애로 서신애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어엿한 대학생이 된 그의 모습은 사뭇 놀라웠다. 그는 최근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서신애뿐일까. 요즘 브라운관에선 그야말로 아역 배우 출신들의 성장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 <아역 배우에서 진짜 배우로=서신애와 함께 ‘뽕꾸꾸’ 호흡을 맞췄던 진지희는 최근 KBS 2 TV ‘백희가 돌아왔다’에서 인상적인 연기로 주목 받았다. 통통한 볼살을 가진 귀여운 꼬마로 그를 기억하던 사람들에게 호랑이가 그려진 점퍼에 핫팬츠를 입고 담뱃갑을 흔들며 보이는 진지희는 새로웠다. 하지만 정작 진지희는 “불량 학생 연기는 이미 다른 작품에서도 해봐서 익숙하다”고 했다. 장기간 휴식 없이 꾸준히 연기를 해왔음에도 아역 이미지를 벗기가 쉽지 않았다는 의미다.

MBC TV ‘해를 품은 달’에서 나란히 아역으로 활약했던 김유정과 김소현도 최근 잇달아 주연을 맡으면서 더이상 ‘누군가의 아역’이 아님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과자 CF로 데뷔했던 김유정은 MBC ‘앵그리맘’에서 부쩍 성장한 모습을 보여준 데 이어 KBS 2TV ‘구르미 그린 달빛’을 통해 ‘대세’ 박보검과 뜻밖의 로맨스를 그리기에 이르렀다. 김소현은 ‘후아유-학교2015’를 통해 청춘 스타로 자리매김하던 최근엔 tvN ‘싸우자 귀신아’에 여 주인공으로 출연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영화 ‘아저씨’에 출연했던 김새론도 어느새 JTBC ‘마녀보감’에서 여주인공을 맡으면서 아역배우라는 껍질을 깨고 나올 준비를 마쳤다. 군 제대 후 상남자로 돌아와 드라마와 영화를 오가며 활약 중인 유승호. 당당히 투톱 주연으로 활약한 여진구는 이제 ‘아역’의 그림자를 벗어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역 이미지에서 고풍 호소도...“꾸준히 활동하며 이미지 변신”=SBS 시트콤 ‘순풍산부인과’(1998~2000)에 미달이로 출연했던 배우 김성은은

프로그램 중영 이후 잠시 활동하다 11살의 나이에 곧 유학을 떠났다. 이후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미달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칼로 찌르고 싶었다. 내가 정신병자인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었다”고 고백한 그는 ‘미달이’ 꼬리표 때문에 심한 우울증을 앓았고 자살 시도까지 했다고 털어냈다. 어린 나이에 타의로 가지게 된 이미지를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아역 배우들의 중압감을 보여준다. 대표적인 아역 출신 배우 문근영은 지난해 인터뷰에서 “연기를 너무 빨리 시작했나?”라는 후회와도 같은 생각을 수도 없이 했다”며 “내가 나이가 든다는 것을 대중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고민은 때로는 실제 나이보다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려 노출을 허거나 노출한 모습을 보이는, 조금씩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런 면에서 최근 아역 출신 배우들의 활약은 과거 아역 배우들과는 다르다. 공백기를 갖기보다는 꾸준히 활동한다. 아역 출신 배우가 속한 기획사 관계자는 “소속사도 아역 시절의 긍정적인 이미지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성인 연기자로서의 이미지 변신을 할 수 있는 캐릭터를 찾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소란 일으키고 누 끼쳐 죄송”

조영남, 대작 논란 사과...“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사회적으로 소란을 일으켜 죄송합니다.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대작(代作) 그림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화가 조영남(71)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불러 일으킨 대작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지난 14일 춘천 지검 속초지청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후 심경을 밝히기는 처음이다. 그는 지난달 28일 부산에서 열린 ‘세시봉 콘서트’에서 공연 도중 90도로 사죄 인사를 했지만 그간 침묵해왔다. 조영남은 휴일인 19일 “지난 한 달 여 논란의 중심에 섰다”며 “이 사건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미안함을 꼭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사건 초기 조영남이 한 발언은 미술계에 파장을 불러오기도 했다. 그는 대작에 참여했다고 주장한 무명화가 송모 씨에 대해 “송씨는 조수이며, 조수를 두고 그림을 그리는데 미술계의 ‘관행’이라고 말해 미술계의 반발을 불렀다. 미술 단체들은 최근 조영남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조영남은 “나는 화물을 소재로 하는 팝 아티스트”라며 “관행이라고 말한 것은 미술계에 누를 끼치거나 불편하게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 해외 유명 작가들의 작업기를 접하면서 나 스스로 해석하고 믿어온 방식을 뜻하는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본의 아니게 미술계에 몸담은 분들께 상처를 입히게 돼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그는 첫 공판 기일이 잡히면 법정에서 선다. 공소 사실은 2011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송씨 등 대작 화가 2명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뒷칠 작업을 해 판매한 혐의다. 검찰은 조영남이 대작 그림을 20명에게 26점을 팔아 1억 8350만원을 챙겼다고 봤다. 조영남은 관련 질문에 대해 “곧 재판을 앞둔 처지여서 공소 내용과 관련해 상세하게 말하기 어렵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수현 작 SBS ‘그래, 그런거야’ 조기 종영

“시청률 부진 아닌 리우 올림픽 중계 일정 때문”

김수현 작가의 SBS TV 주말극 ‘그래, 그런거야’가 조기 종영한다. 20일 SBS에 따르면 60부작으로 예정됐던 ‘그래, 그런거야’는 6회 축소된 54회로 오는 8월 14일 종영하게 됐다. SBS 관계자는 “시청률은 나쁘지 않았다는 것이 내부 평가”라며 시청률 부진으로 인한 조기 종영이 아니라 리우 올림픽 중계로 인한 방송 회차 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래, 그런거야’는 수많은 히트작을 쓴 김수현 작가의 작품으로 기대를 모으며 지난 2월 첫 방송했다. 첫 회 4%(닐슨코리아, 전국)의 다소 아쉬운 시청률로 출발, 10.7%까지 시청률이 오르기도 했으나 주로 8~9%대에 머무르고 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and Program Name. Lists various TV shows and their broadcast times for June 21st.

Table with 4 columns: Time Slot and Program Name. Lists various TV shows and their broadcast times for EBS 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21일(음 5월 17일 甲戌). A horoscope section for the day, listing zodiac signs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s.